

'남원 비전' 시민과 함께 그린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나선다

내달 6일까지 23개 읍·면·동 순회 '시민공감 소통한마당' 개최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과의 현장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읍·면·동별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1월 22일 산동면을 시작으로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월 6일까지 12일간 관내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6 시민공감 소통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소통한마당은 그동안 남원시가 추진해 온 현장 중심 행정과 시민 참여형 시장 운영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점검하고, 현재의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의 남원 발전 비전을 함께 그려 나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2026년은 붉은 말의 해(병오년)로, 역동성과 도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해인 만큼 남원시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시장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경식 시장은 소통한마당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경청하고, 이를 시장에 성실히 반영함으로써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남원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그동안 읍·면·동 현장 방문과 간담회, 시민 제안 제도 등을 통해 생활 밀착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반영되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

이번 한마당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읍·



남원시는 시민과의 현장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읍·면·동별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6 시민공감 소통한마당을 개최한다.

면·동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을 공유한 뒤 시장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 시간을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형식적인 보고를 지양하고 시민의 질문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는 참여형 소통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인 공감과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 스마트 경로당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계해 어르신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등 세대와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제안함을 통해 사전에 접수된 건의사항 중 일부는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로 이관해 검토·회신함으로써 시민의 제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기적인 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고 읍·면·동별 특성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남원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을 시민과 함께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은주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시민공감 소통한마당은 그동안의 시장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앞으로의 남원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열린 대화의 장"이라며, "함께 듣고, 함께 공감하며, 행정은 함께 여는 남원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성실히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N치즈, 페루에서도 연수 온다

페루 국립공과대 방문단, 낙농 유가공산업 고도화 모델로 벤치마킹

임실N치즈가 페루의 국가농업 경쟁력 강화와 인재육성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국제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남미 서부에 위치한 페루 국립공과대학교 에르메스 부총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이 지난 21일 임실군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페루 정부가 UN 협력자금을 활용해 추진중인 낙농·유가공산업 고도화와 청년 기술인재 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국립공과대학교 내 치즈가공시설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대표 치즈 특산지인 임실군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페루는 최근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소득 증대를 국가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단순 원유생산을 넘어 부가가치가 높은 치즈 등 가공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60여년의 역사와 체계적인 산업생태계를 갖춘 임실N치즈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주목받으며 이번 교류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에르메스 부총장 일행은 임실치즈마을의 공동체 운영방식과 지역 기반 유가공 산업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목장형 유가공업체와 임실치즈데마파크 치즈역사문화관 등을 견학했다.

특히, 스마트 제조설비와 자동화생산 시스템, 체계적인 품질관리시스템 등은



페루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치즈산업 육성전략과 직접 맞닿아있는 분야로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페루 국립공과대학교는 향후 치즈가공시설을 설치해 치즈가공산업 육성에 나선 계획이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페루 국립공과대학교 대학생과 임실지역 낙농가의 교류를 통한 유가공 산업 연수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페루 국립공과대학교 대표단과의 교류를 통해 임실치즈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진총영 기자

순창군, 환경개선·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등 추진

순창군이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근무환경 개선부터 금융 지원, 인력 정착까지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지원하며,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등 복지시설과 소음·악취 저감장치, 환기시설 등 근무환경 전반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70%,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한다.

아울러 외부 주택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기업에는 임차료의 80%(월 최대 20만 원)를 지원하는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시행, 외지 근로자 유입과 고용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기업 관로 확대를 위해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도 제공한다.

서울 코엑스, 일산 킨텍스 등 대형 전시회 참가 시 부스 임차료의 80%를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해, 관내 기업이 전국 단위 바이어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운영, 기업 대출 자금의 이차 최대 4%를 군에서 지원하며, 지난해에는 12개 기업이 총 32억 원 규모의 용자를 통해 혜택을 받았다.

출퇴근용 승합차량 유류비의 50% 지원 제도와 병행해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청년층 정착을 위한 주거 인프라도 마련 중이다.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은 총 70억 원 규모로, 2026년 7월 완공을 목표로 40실 규모 공동기숙사를 건립 중이며, 관내 중소 제조기업 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 주거 공간을 제공해 장기근속과 정주 유도를 기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지역경제의 기반이자 미래 경쟁력"이라며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장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이숙자 남원시의원, 5분 자유발언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22일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숙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운봉읍 소재 영농조합법인이 시 소유의 시설을 사유화해 임대하고 무허가로 카페 및 숙박업을 운영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겼음에도, 남원시는 해당 법인에 부적합한 용도의 허가를 내주는 등 위법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

다고 말했다.

또한, △지리산 허브밸리 사업의 공유재산 관리부실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이 해지된 민간사업자가 허브복합토포아관을 8년째 무단 점유 중임에도 남원시가 명도 소송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비래봉 눈꽃 축제 회계조합법인이 시 소유의 시설을 사유화해 임대하고 무허가로 카페 및 숙박업을 운영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겼음에도, 남원시는 해당 법인에 부적합한 용도의 허가를 내주는 등 위법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책값 돌려주기 사업 지원 규모 확대 운영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시민들의 독서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서점과의 상생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책값 돌려주기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추진한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와 시민 건의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1인당 월 지원 한도를 기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 것이 가장 큰 변화로, 지원금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경

제적 부담 없이 책을 구입하고, 일상 속 독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독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용은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한 후 구입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남원시 공공도서관 3개소(어울림·시립·어린이청소년) 중 1곳에 도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1인당 월 2권 범위 내에서 최대 5만원까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업에는 7개 서점이 참여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본격 가동

임실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임실군은 최근 기온 변화와 개체 수 증가로 인해 야생동물의 농경지 침입이 잦아짐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작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공개 모집을 통해 수렵 면허를 취득한 지 5년 이상 된 경험이 풍부한 관내 모범수렵인 40명을 피해방지단으로 선발하였으며, 지난 15일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정영국 정복직 부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총기 안전 교육, 야생동물관리시스템 사용법,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시 준수사항을 교육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 준비를 마쳤다.

/임실=진총영 기자

순창군, 세외수입 증대방안 보고회 열려

순창군은 지난 21일 부군수실에서 2026년 세외수입 증대방안 보고회를 열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담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세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는 조광희 부군수 주재로 세입총괄부서장과 각 세입부서 팀장, 예산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입 전담과 함께 세외수입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세입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모색에 초점을 맞췄다.

2026년도 순창군 일반회계 예산은 총 5,597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 중 지방세는 246억 원, 세외수입은 167억 원이다.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세입 감소 원인과 대응 방안, 온라인 홍보를 통한 수수료·사용료 수입 확대,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보건수수료 증대, 자동차 과태료 이월 체납액 축소, 공공요금 이자수입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또한 보통교부세와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순창=이영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향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유현 광통부(廣通府)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제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킁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